1강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한 전사, 루쉰

(1교시)

■ 루쉰은 어떻게 전사가 되었나

※ 학습목표
루쉰의 성장배경을 알아본다

▲ 다른 것 사이의 긴장이 담긴 이름
루쉰(魯迅), 본명은 주수인(周樹人)으로 樹(나무-자연, 생명)와 人(사람-자연을 가공하여 제2의 자연을 만들어내는 존재)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루쉰의 삶이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의 글에 나타나는 큰 스케일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본명인 노신에서 노(魯-노둔하다, 늙고 우매하다)와 신(迅-신속하다)의 상반되는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 안에 두 가지 속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신의 사유와 글 역시, 늘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깊이를 더 해가는 방식이다.

* 참고자료

중국의 작가
루쉰 〔魯迅, 1881.9.25.~1936.10.19〕

▲ 도련님에서 소년가장으로의 전락
"나는 누구든 안락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반대의 생활로 떨어져 버렸다면,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자서」)
"약방 계산대가 내 키만큼 높았으며, 전당포의 계산대는 내 키의 갑절이나 되" (「자서」)

1881년 태어난 루쉰은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고 아버지가 병환을 얻으면서 루쉰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루쉰은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 약방으로, 돈을 구하기 위해 전당포로 뛰어다니게 되었는데 약방 계산대와 전당포의 계산대는 어린 루쉰이 느끼는 세상의 벽만큼이나 높은 것이었다. 약방 계산대는 루쉰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현학적인 전통의 세계였기에 루쉰의 눈높이를 뛰어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당포의 계산대는 어린 루쉰에게 화폐의 소중함과 더러움을 동시에 알게 해준 곳이므로 심리적으로 훨씬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루쉰이 느꼈던 세상의 두 가지 벽이다. 또한 이것은 전통적인 낡은 시대의 유물(약방), 그리고 자본주의적 질서인 서구의 문명(전당포) 사이의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루쉰은 성인이 되어 이 두 가지 것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게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양의학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간 루쉰

결국 루쉰의 아버지는 죽었고 루쉰은 아버지가 비과학적인 한의학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루쉰은 양학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대문물은 마술이며 오랑캐에게 혼을 빼앗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는 남경의 광무철도학교에서 처음으로 물리, 수학, 역사, 지리, 체육, 미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근대적인 학문을 접하게 된다. 그 당시 대부분의 근대지식인들은 동경으로 유학을 가지만 노신은 아버지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결심으로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센다이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 온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교수가 루쉰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노트 필기를 지도해 주었다. 이를 질투한 학생들이 그것을 사건화하여 교수와 루쉰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환등기 사건'이다. 미생물학 시간에 환등기로 뉴스와 같은 필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본학생들은 일본이 이겼다는 이유로 전쟁에 관한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었다. 또한 루쉰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 군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일본인에 의해 총살되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중국인들을 욕하고 있었다. 루쉰은 이 사건으로 의사의 길을 접게 된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환호할 수 있는가? 또한 루쉰은 중국의 무지몽매함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자기 동족이 죽는 것을 둘러서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에 루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후에 루쉰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패거리들'의 모티브가 되었다. 또한 집요한 복수의 테마 역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패거리라는 장(場)을 만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루쉰과 니체 - 무거움과 웃음의 공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체는 고급스러운 명랑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을 억압하는 것 혹은 사소한 비속함 같은 것들을 내려누르는 강한 힘이 경쾌한 명랑성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에 비해 루쉰은 무거운 분위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간혹 하이(High) 코미디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은 아주 가벼운 웃음을 유발하는 무거움인 경우가 많다. 이런 고급스러운 코미디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니체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강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한 전사, 루쉰

(2교시)

■ 그는 어떻게 전사로서의 삶을 개혁 했는가

※ 학습목표
루쉰이 의학에서 문학으로, 그리고 적막과 비애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정신개혁을 위한 문학

"무릇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체격이 제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하잘것없는 본보기의 재료나 관객 밖에는 될 수 없었다.그러므로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당시에는 당연히 문예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루쉰이 살던 시대의 중국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던 시기였기에, 근대국가를 설립하고자 했던 선각자들은 법률이나 의학,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루쉰은 문학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문학을 통해 중국인의 정신을 치료하고자 한 루쉰은 친구들과 함께 「신생」이라는 잡지를 내게 된다. 그러나 사정은 그들을 따라주지 않아 잡지는 실패하게 되는데 루쉰은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사람의 주장이 남의 찬성을 얻으면 전진하게 되고, 반대를 얻게 되면 분발하게 된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외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즉 찬성도 반대도 없다면, 마치 끝없는 벌판에 홀로 버려진 듯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비애인가! 나는 내가 느꼈던 것을 적막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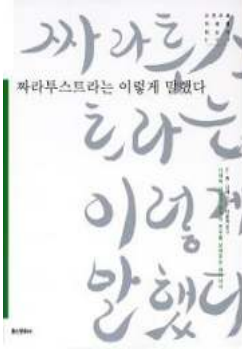
그가 말하는 무료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무기력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적막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약방과 전당포의 계산대에서 느꼈던 좌절감은 성인이 된 루쉰에게 세상에 대한 비애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게 된다. 곧이어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 왕조가 몰락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원세개로 대표되는 군벌의 발호로 역사가 반동화 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루쉰의 비애와 적막은 더욱 깊어졌다. 루쉰은 시간을 벌기로 하고 동경으로 와서 동생과 함께 지내며 잡지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문화와 진화론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고, 많은 양의 번역을 한다.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동부에서 구박받고 사는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번역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중국 근대의 초석자들이자 계몽 사상가들을 만나 사상적 교류를 하기도 한다.

▲ 니체와 루쉰 - 초인사상을 이해한 루쉰
루쉰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번역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니체의 초인사상이 유통되는 방식은 굉장히 저급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계속 벌어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치 히틀러가 니체를 전유하는 방식에 가깝게 니체의 초인사상이 수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쉰은 당시의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니체를 수용했는데 현재의 우리가 니체를 수용하는 방식과 유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프리드리히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홍신문화사, 2006)

▲ 칩거 생활을 벗어나 세상으로 뛰어 든 루쉰

루쉰은 1909년까지 일본에 있다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와 선생님이 된다. 혁명 이후에는 6,7년 동안 교육부 관리로 일하기도 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면서 정신없는 생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 함께 공부하며 중국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했던 친구들이 중국에 돌아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았으며, 동시에 '장훈의 복벽'에 항거하는 뜻에서 그는 결국 칩거 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의학과 문학 모두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낀 것이다. 그는 몇 년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왕래 없이 비문을 베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전현동(錢玄同)이 잡지「신청년」에 참여하라며 그를 찾아온다. 시대의 적막과 비애에 좌절한 루쉰을 설득한 것은 전현동의 '철방의 비유'였다. 철방의 비유란, 아무것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으며 문도 없는 방안에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 고통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루쉰은 어차피 고통 없이 죽어갈 수 있으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지만 전현동은 문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루쉰은 결국 전현동에게 설득 당하게 된다. *"내가 겪기에 고통스러웠던 적막감을, 내 젊은 시절과 같이 꿈에 부풀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코 다시는 전염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독한 칩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